

지역특이사항

# 정읍시, 내장산 귀갑약수 개발 착수

김제시, 세외수입 체납액 강력징수

김제시는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이 매년 늘어남에 따라 자주재원 확보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하여 "체납 세외수입 특별징수 대책"을 마련하여 오는 연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에 체납 세외수입 징수강화를 위하여 부서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납 세외수입 징수 전담팀"을 구성 운영하여 체납액 10억3,300만원의 징수를 목표로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제시는 세외수입은 자체수입으로 그 종류가 많고 납부의식이 희박하여 해마다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압류, 공매,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관련 범질서위반 과태료 체납은 납부의식이 가장 미약한 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하여 체납자의 재산, 급여, 예금을 압류하고 관여 사업제한 및 신용정보회사 등에 체납 정보를 제공하여 강력 추진기로 하였다.

김제시 관계자는 "그동안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최고징과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나 징수율이 저조한 실정"이라며 "열악한 자주재원 확보는 물론 성실납부자의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김제보건소, 식중독 예방 교육 실시

김제시보건소(소장 박재민)는 최근 이른 고온현상과 큰 일교차 등으로 식중독균의 번식우려가 크게 높아짐에 따라 음식물 관리 부주의, 식품보관·섭취·개인위생 소홀에 의한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고자 20일 「사회복지시설 식중독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하였다.

보건소 1층 회의실에서 이루어진 이날 교육에는 소규모 어린이집과 지역 아동센터, 노인 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소 관리자와 종사자 등 90명이 참석하였으며 김인겸 식중독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식품안전관리 중요요령과 개인 위생관리, 식재료 위생관리 요령, 식중독 발생 시 대처요령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나트륨 저감화, 어린이 기호식품 및 부정불량식품 주의 섭취 등 급식시설 이용자를 위한 식품안전 홍보활동도 함께 진행되었다.

김제시 관계자는 "지난 6월 7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80여명을 대상으로 한 식중독예방 교육에 이어, 이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90여명과 함께한 식중독예방 특별교육으로 김제시 식중독 제로화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 기대되며 지속적인 위생 점검과 교육 홍보로 더 건강한 김제민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김제 금산파출소, 공·폐가 점검

김제경찰서(서장 임상준, 금산파출소 소장 임진욱)는 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들이 주·야간으로 주택가와 골목 등을 통행할 때 성폭력 등 강력범죄로부터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관내에 있는 공·폐가에 대해 집중 점검을 하고 차단 시설이 필요한 공·폐가에 대해서는 건물주에게 통보 조치 하고 있다.

금산파출소는 관내에 있는 금산고등학교(교장 조영석) 학생들이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는 시간대에 맞춰 학생들의 안심 귀가와 함께 공·폐가에서 배회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20시 이후에 공·폐가 지역을 집중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학생들이나 또장여성을 위해 순찰차량을 이용한 안심 귀가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임진욱 금산파출소장은 "금산면 주민들도 마을내에 있는 공·폐가나 방치차량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해 수시로 점검하고 불안한 요소가 있을 경우에는 112 또는 스마트 국민 제보 앱을 이용한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 가뭄 인한 상수원 고갈 대비... 지하 심층 암반수 1일 200톤 채수 규모

정읍시가 국가 비상사태 및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상수원 고갈에 대비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보 일환으로 '내장산 귀갑(龜甲)약수' 개발에 착수했다.

시는 "내장산문화관광지에서 지하수 시추조사 및 지하수 영향조사를 실시해 지난 20일 지하 250미터 지점에서 1일 채수량 200톤 생산규모의 심층암반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약수를 개발해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개방 비상 시 급수시설로 활용하는 한편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에 따른 스토리텔링을 마친 상태로 내장산 귀갑(龜甲)약수 설하는 다음과 같다.

시에 따르면 정읍 일대는 태곳적 샘물이 솟던 샘바다(井海)로, 물이 좋아 황해(黃海)를 중심으로 백제연안의 바다생물들이 즐겨 찾던 청정해역이었다.

샘바다가 육지화 되면서 대부분의 백제연안의 바다생물들은 더 이상 샘바다를 찾을 수 없게 되었지만 네 발로 걸을 수 있는 거북은 예외였다. 샘바다를 찾은 거북들은 한결 같이 꿈고 장수했다.

어느 날 샘바다에서 일광욕을 즐기던 공주거북이 내장산 기슭에서 양치는 목동을 발견하고 사랑에 빠졌다. 황해로 돌아간 공주거북은 용왕을 찾아가 목동과의 혼인할 방도를 묻자 용왕은 내장산 봉우리에 올라 뛰여



내장산문화관광지 지하 250미터 지점 심층암반수 '귀갑약수'

내리면 소원을 이룰 수 있다. 그러나 마음이 변해 돌아올 때는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고 일러주었다.

공주거북에게는 의종은 자매 동생이 있었는데 동생 역시 목동을 짝사랑하고 있었다. 이 사실을 안 공주거북은 크게 실망하고 동생을 데리고 내장산 봉우리에 올랐다.

내장산 봉우리에 오른 공주거북은 눈물을 머금고 동생을 벼랑 끝으로 밀쳐 떨어뜨리고 곧장 발길을 돌려 고향 황해로 향하지만 사랑하는 목동의 모습이 자꾸 떠올라 뒤돌아보는 순간 거북바위가 되었다.

훗날 사람들은 온갖 풍상에 씻겨 다향바위 거북바위를 깎아와라 부르고 있다

한편, 벼랑 끝으로 떨어져 만신창이가 된 동생 거북은 겁질을 벗고 여여쁜 여인이 되어 폭풍과 혼인했다.

약한 뼈를 갖고 태어난 목동은 허약했다. 목동의 아내는 자신이 벗은 겁질을 남편에게 불에 태워 갈아 먹였는데 그 뒤 목동은 허리뼈가 튼튼해져 근육 좋은 부부로 천년을 해로했다.

남은 겁질을 물은 땅에서는 샘물이 솟구쳐 올라 그 샘물을 귀갑(龜甲)약수라 불렀다.

뒤 늦게 거북바위의 진실을 알게 된 동생거북은 사후 수호신이 되어 지금도 거북바위 아래에서 슬퍼하며, 목을 빼들고 공주거북을 지키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 새만금컵 국제요트대회 개최

부안 격포항 · 새만금 일원에서 23-26일

산·물·바다와 노력이 어우러진 부안군 격포항과 새만금 일원에서 제2회 새만금 컵 국제요트대회가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펼쳐진다.

전북도와 부안군이 주최하고 전북요트협회와 제2회 새만금 컵 국제요트대회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미국, 캐나다, 프랑스, 덴마크, 중국, 일본 등 16개국 50여 척의 요트들이 참가해 대회를 치를 예정이다.

24일 개최식에 시범경기가인 프로임레이스를 시작으로 25일 참가요트 페레이드 퍼포먼스 해상시열식

및 인쇼어 경기가 진행되고 26일 오프쇼어 경기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여기에는 국제요트대회 전국 사진촬영대회, 어린이 사생대회, 종려작가 화가전, 캐러 반달귀지 동호회 캠핑 등 다양한 이벤트로 격조화와 새만금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국제요트대회의 진면모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범선 '코리아나호' 등 관람객을 운영해 승선체험 행사가 대회기간 동안 운영되며 자세한 사항은 전북요트협회(☎ 063-584-1005)로 문의하면 된다.

/부안=이옥수 기자



간담회에는 정읍시의사회와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약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읍지사 등 총 25명의 의약단체 회원이 참석했다.

## 정읍보건소, 의약단체 · 건강보험공단 간담회

정읍시보건소는 최근 정읍실내체육관에서 의약단체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정읍시의사회와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약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읍지사 등 총 25명의 의약단체 회원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약단체 회원으로 새로 가입했다.

간담회에서는 진료현장에서 느끼는 목소리를 청취하고 환자들의 의

약 업소에 대한 불문사항을 전달하는 등 상호간 이해증진과 함께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지를 다졌다.

간담회 후에는 2개 팀으로 나눠 경기를 함께 하며 화합을 다졌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의약단체와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의료법 및 약사법 등의 개정사항 등 관련 기관에 필요한 정보 등을 신속히 전달함으로써 공정하고 진정된 의료서비스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이번 입시설명회는 2018학년도 이후 변화하는 대학입시제도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 부안군, 대학입시설명회 대성황

부안군 대학입시설명회가 지난 17일 부안예술회관에서 개최된 가운데 학생 및 학부모 등 500여 명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루었다.

이번 설명회는 2018학년도 이후 변화하는 대학입시제도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법무부 법사 팀위원장 부안지구 협의회(회장 은희준) 주관으로 실시됐으며 부안군과 DVB 최선 어학원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강의에 나선 김성민 DVB교육 입시전략연구소장은 "201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도 바뀌고 있다"며 "학생부 종합전형과 자기소개서 작성 시 사례 위주의 강의를 펼쳐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도움을 얻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학생은 "2018학년도 이후 대학입시제도의 변화를 예측하고 향후 입시전략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 부안 주산면, '알콩달콩 블루베리 축제' 큰 호응

염색 · 주산만들기 등

부안군 주산면 갈촌리 신기 마을에서 열린 제1회 알콩달콩 블루베리 축제가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 속에 성황리에 개최됐다. 등 성황리에 개최됐다.

지난 18~19일 2일간 열린 이번 축제는 주산면 알콩달콩 블루베리 축제 추진위원회(위원장 배대전) 주관으로 주산면의 6차 산업 특화작목인 블루베리를 지역주민과 관광객 1300

여명의 도시민들이 찾아오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마을 소 축제로 치러 졌다.

주산면에서 생산 되는 블루베리는 청정한 환경에서 빚어낸 최고의 농산물이자 노화방지에 최고인 100세 보장 건강 먹거리로 블루베리는 타임지가 선정한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첫날 축하공연 및 개회식을 시작으로 특산물 판매장·지역주민 특별 제작품 판매장 등 상설 전시행사와 배

리 주산 만들기·손수건 염색·블루베리 포토존 등 체험행사, 블루베리·오디 수확체험, 블루베리 짬뽕 경매, 노래자랑 등 다채롭게 열려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주산면 관계자는 "특산물 판매장과 짬뽕 경매 등을 통해 주산면에서 생산된 블루베리, 오디, 곱물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관광객들에게 부안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한 축제"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 김제교월동, 여름 병해충 방제 시스템 가동

차량 이용 집중 방역 · 마을별 자율방역단 구성

김제시 교월동은 오는 20일부터 모기 및 파리 등의 여름철 고질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차량을 이용한 집중 방역시스템과 마을별 자율방역단을 구성하고 '클린&세이프' 깨끗하고 안전한 교월동 지키기 방역 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기 시작했다.

특히 올해에는 예년보다 일찍부터 기온이 높아 모기 등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지카바이러스 매개충인 흰줄숲모기의

예방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월동은 용당이 및 막인 배수로 등 고인 물이 있는 모기 서식지에 대해 집중 방역을 실시하고자 통장을 중심으로 한 마을방역단을 구성하였으며 이에 앞서 마을별로 보유하고 방역분무기 등을 자체 점검하는 등 민간의 준비를 갖추면서 깨끗하고 안전한 교월동 지키기에 주민 스스로 발 벗고 나섰다.

또한 해마다 '교월동을 사랑하는 모임(이하 교월모임)'내 청년 방역단에

서 병해충 구제를 도와주고 있으며, 지난 11일에도 20여명의 봉사 방역단이 모여 방제식을 가지면서 2016년도 하계 방역 시스템을 본격 가동하는 시작을 알렸다.

박상문 교월동장은 "바쁜 농사철에도 젊은 청년들을 중심으로 방역단을 구성하고 해마다 봉사활동을 하는 교월모임 봉사단과 통장님을 중심으로 한 마을방역단체가 깊이 감사를 드리며, 행정에서도 클린&세이프(깨끗하고 안전한) 교월동 지키기에 주민과 하나가 되어 방역작업을 펼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 정읍시청무과 · 영원면 일손돕기

청무과와 영원면 직원 30여명은 20일 사랑나눔 감사수확에 나섰다.

경로당 및 저소득층 돕기 사업 일환으로 이날 수확한 감자는 은선리 소재 1천200㎡의 농지를 무상으로 임대

받아 지난 3개월간 영원면 직원들이 가꾼 결실이다.

이날 직원들은 모두 150박스(10KG)의 감자를 수확했고, 이를 감자는 지역 내 경로당 및 복지사각지대인 저소득층에 전달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